

동부파이안 중회 보고

(東部パイアン中会報告)

아이코포부락이(15 일)산사태의 피해를 입어아이코포 초등학교 에 피난하고 있다. 부락의 주민에 대한 식품 과 물의 지원이 요구된다. 아이코포 교회 목사 이카스에 의하면 필요한 물자의 양이 많아서 교회만의 공급으로는부족하기때문에 외부에서의 지원을 요청하고 싶다. 총회교사 위원및 다를 기구의 도움을 구합니다.

아이코포 주민 의 금후

(愛国蒲住民の今後)

1.피난소인 아이코포 분교는 9 월 18 일(일)오후 까지 피난할수 있지만, 학교가 다음주 월요일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용할수 없게 된다.

2.9 월 18 일 (일)오후이후에 피난소는 부락 이동 센터로 이동 , 9 월 25 일(일)까지.

이기간중에. 타이핀야구 로부터 군인이 부락의 주민과 함께 부락과 교회의 산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을 한다.

3.피난소에 의한 주민과 구제 스태프를 포함해 80 면에서 달함. 교회는 9 월 25 일까지의 필요한 물자와 하루 세끼의 식품 을 모집한다. 교자,만토,면류,통조림,밀가루,물,토스트,빵등.

여러분의 지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.

"야구의 고장 "이라 칭하는 타이단 현 엔핀폰안효마을 은 9 월 15 일 새벽 산사태사 일어나 뒷산 붕괴로 인해 진흙이 부락을 습격, 30 세대 약 백명이상의 주민이 긴급 피난, 도우관활동 센터, 도우관 초등학교, 파시카우교회 ,푸른문화기금회타이단 부린 의 타이단치예쓰소에 피난 . 학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16 일타이단 정부에 의해 도우관초등학교 로 피난하고 있는 주민을 타이단 부린의 타이단 치예쓰소로 이동.

16 일 오전 안효교회 장빈신 목사는 안효부락에 도착. 산사태가 민가를 습격하여 가옥이 떠 내려가고 붕괴된 피해 현장을 보았다.푸른 중회 교사부 부장 루마후 목사에 의하면 4 분의 1 정도의 피해자가 피난 생활이 길어 질 것을 예상. 정기적인 케어가 필요하며, 부락의 주민의 피해 후의 복귀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.